

입는 한복문화, 사진 여행문화로 확장

남원예촌 한복문화체험관 화인당, 사진작가에게 무료 개방

남원시가 입는 한복문화를 한복사진 여행문화로 확장해 한복체험 관광활성화에 나서며, 남원예촌 한복문화체험관 화인당을 사진작가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한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화인당 공간을 지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한복 마케팅 공유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남원 화인당은 고풍스러운 전통한옥 내 한복 대여소, 셀프 사진관, 파티존, 인생샷 포토존 등 한복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남원시는 사진작가의 수준 높은 한복사진을 화인당 SNS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관광투원과 화인당을 한복입고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마케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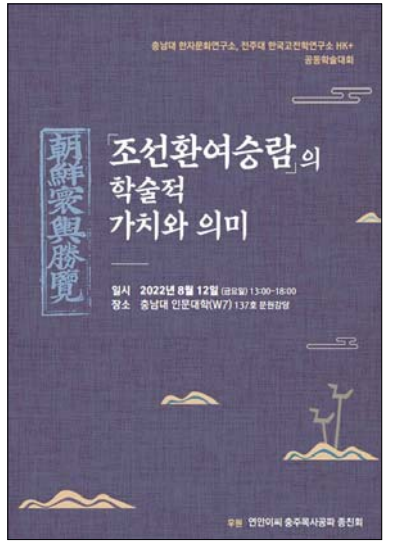
한복차림으로 화인당에서 실내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 바로 앞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광한루원 곳곳의 정취를 느끼면서 남원과 한복의 멋스러움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한복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사진작가는 전화(063-620-5658)로 사진예약 후 시민 및 관광객과 함께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가족, 웨딩, 연인 등 한복 체험객에게는 한복 대여료를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남원시 양인환 관광과장은 "이번 화인당 한복스튜디오 개방을 통해 우리 고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사진 여행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예촌 한복문화체험관 화인당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조선환여승람
학술적 의미와 가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충남대서 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은 12일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충남대에서 '조선환여승람의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 정만호 교수의 사회로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준배 공주 유도회장, 이항배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장, 변주승 전주대 한국고전학 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소장은 "이번 국내학술대회는 근대 최고의 인문지리서인 '조선환여승람'의 학술적 가치와 송석 이병영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향토회관에서 타악연희퍼포먼스인 'yeta' 공연을 진행한다.

타악연희퍼포먼스인 'yeta'는 전통타악은 물론 창작타악, 국악의 신명과 월드뮤직 등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퓨전공연이다. 새로운 타악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 타악 연주단체인 'HATA'만의 창의적

신나는 두드림 속으로 초대

순창군, 타악연희퍼포먼스 'yeta' 18일 향토회관서

이곳 독특한 해석을 통해 동서양이 융합된 강렬한 비트와 자유롭고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통타악이 가진 신명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 연출과 다양한 연주기법의 고민 공연내용의 재창조를 통해 한국의 전통타악이 한국의 물론 세계와 더 많이 교류하고 풍부해지는 음악적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울창한 울림의 대북 연주, 창작 타악 사물판굿, 드럼 등의 악기 협연은 물론 전통 타악 연주의 재해석을 통한 창작공연으로 기존의 타악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노홍균 과장은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생활마저 위태로워지는 힘든 시기에 타악 연주의 울림과 신명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함께는 '방랑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순창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공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35)로 문의하면 된다.

전통문화전당, 제4대 원장 공모

16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6일까지 전당을 새롭게 이끌어 갈 제4대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3대 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전당은 새로운 원장 채용을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당 이사회로부터 각각 위임을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응모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당 인사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세부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서 등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6~26일까지로,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를 병행 실시한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응모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전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주시장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 가능하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 '채용공고'(www.ktc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당 경영기획팀(063-281-1511)으로 하면 된다.



가람문학관은 이달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주요 저술들에서 서문, 해설, 서언 등을 뽑아 2022 기획전시 '가람서문전'을 개최한다.



김제서 '쇼 뮤지컬' 화려함·감동 선사

김제문화예술회관서

26일 '노래는 리듬을 타고'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8월 문화가 있는 날 '노래는 리듬을 타고'가 개최된다.

출중한 실력의 보컬리스트들과 뮤지컬의 한 장면과 같은 무대연출, 그리고 파워풀한 춤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하는 쇼 뮤지컬의 화려함과 감동을 선사하는 뮤지컬 갈라쇼로 화려하고 버라이어티한 무대연출을 선보인다.

이번 김제 공연에서는 뮤지컬 미녀와 야수, 모아나 겨울왕국, 맘미아 등 뮤지컬의 대표작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화려한 춤과 라이브 노래, 관객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전하는 배우들의 연기력과 세련된 무대매너로 브로드웨이 쇼 뮤지컬의 화려함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8월 1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16일까지 열리는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부안청자.

부안청자,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초청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인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에 부안청자가 초청되어 아름다운 비취빛 부안청자를 전북 도민들에게 소개한다.

이번에 열리는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북지역 미술인들의 교류와 친밀한 미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미술문화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재도약하는 미술계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페스티벌에는 전북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로작가, 중견작가, 신진작가 초대전을 개최하고, 전북예술회관에서는 전통과 현대공예가 조화를 이루는

공예이야기 전을 개최해 전세대를 아우르고 화합하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부안청자박물관(부안관요) 사기장 김문식, 강익석, 송승호작 가의 새로운 청자편을 제시하는 실용작이면서 디자인을 강조한 청자와 전통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섞인 생활도자기도 함께 전시된다.

부안군 문화관광과 박현경 과장은 "고려시대 화려한 상감청자로 발전시킨 부안의 청자를 전북도민에게 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전북지역 예술인들에게 부안청자의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예술교류와 관객들이 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도자문화자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활동 재조명

익산시 가람문학관서 '가람서문전'

익산시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가람문학관은 이달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주요 저술들에서 서문, 해설, 서언 등을 뽑아 2022 기획전시 '가람서문전'을 개최한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역대시조선' 등 시조의 발굴과 주해뿐만 아니라 '인현왕후전', '한중록', '요원어화기', '의유당일기', '근초대간설' 등 여러 고전문헌을 발굴하고 주해하였는데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국문학전서', '가람문선', '국문학개론'의 서문 또는 서언도 소개한다.

가람은 '역대시조선' 서문에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역사, 문화, 문학 등을 훌륭히 지녔

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자랑보다도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가 잘 알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타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람문학관(063-832-189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가람문학관은 익산 출신으로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켜내고 시조를 현대적으로 부흥시킨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계승하고자 2017년에 개관했다.

가람문학관에는 체험실 상설전시실, 영상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힐링 힐터 문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람문학관 옆에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 수우재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약 200여년 추정된 탕자나무도 구경할 수 있다.

진안군,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생 모집

진안군은 11월 2022 진안군 주민시네마스쿨 심화과정 교육생 15명을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화교육 과정은 진안읍에 있는 청년공간 '월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비영영화민들개·단편영화 제작과정을 주제로 진행되며 개인의 일상, 마을과 지역을 소재로 단편영화를 제작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토리텔링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다양한 촬영기법, 편집 기술, 작품 시사회 기획 및 참여를 통해 영상제작 전 과정을 배우며, 교육 기간 중 완성된 작품들은 진안 마이골드영상회관을 비롯한 도내 시군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한다.

또한 UCC 공모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및 교육신청은 위탁 교육기관인 완주미디어센터 사업팀(070-4218-4313)으로 하면 된다.